

황해도 사찰 간행불서의 서지적 연구*

A Bibliographical Study on the Buddhist Scriptures Published in Temples Located in Hwanghae-do Province

송 일 기 (Il-Gie Song)**

박 지 숙 (Ji-Suk Park)***

목 차

- | | |
|-------------------|-------------------|
| 1. 서 언 | 4. 대표 각수의 판각활동 분석 |
| 2. 황해도 사찰본의 개관사실 | 5. 결 언 |
| 3. 황해도 사찰본의 특성 분석 | |

초 록

이 연구는 조선시대 황해도 지방의 사찰에서 개판(開板)된 불서를 대상으로 시기별 간행 현상과 불서의 성격 등에 대해서 서지학적으로 분석한 글이다. 황해도에서 간행된 불서는 모두 85종으로 파악되었으며, 그 중 『용감수감(龍龜手鑑)』 등 5종은 황해도 사찰에서만 유일하게 개판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 불서는 조선전기 64종이 간행되어 전체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이 중에서도 명종 대에 문정왕후 등 왕실의 후원으로 집중적으로 개판되었던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임란 이후 조선후기에는 급격하게 쇠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바, 이는 임진과 병자의 양난을 거치면서 황해도 지방의 민생이 파탄에 이른 역사적 사실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또한 이들 불서를 대상으로 주제별로 분류하여 성격을 분석해 본 결과 대체로 경전류와 종의류 불서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적으로 사찰에서 개판불사에는 각수의 소임이 매우 중요한데, 대부분의 각수(刻手)는 황해도 지방의 사찰에서 활동하면서 2-3종의 불서를 판각하는데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각수 중에 도성(道成)과 수연(守衍)은 황해도는 물론 다른 지방으로 이동하면서 불서를 판각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목되는 각승(刻僧)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향후 북한지역 내 다른 지방의 개판 불서 연구에 비교 대상 논문으로써 의미를 지닐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periodic phenomena on publication and characteristics of Buddhist scriptures engraved on woodblock in temples located in Hwanghae Province during the Joseon Dynasty period in bibliographic approach. There are total 85 Buddhist scriptures published in Hwanghae Province, 5 scriptures among them including Yonggamsugyeong appear to be engraved on woodblock only in temples in Hwanghae Province. They, published in 64 printings during the early days of the Joseon Dynasty, occupy 75% of total Buddhist scriptures, and are analyzed to be intensively published with the support of royal family members such as Queen Munjeong in the reign of King Myeongjong. However, as the publication displayed a sharply declining tendency in the late Joseon period after the Japanese invasion, it is understood to be identical with historical fact that the people's livelihood in Hwanghae Province closed to ruin through invasions from Japan and Manchuria. In addition, the analysis on characteristics of these Buddhist scriptures by subject indicates that over 80% of them are generally sacred books and dogmas. In fact, woodblock engraving works in temples emphasize on the duty of an engraver, and many engravers are investigated that they engraved only 2 to 3 Buddhist scriptures in temples located in Hwanghae Province. Doseong and Suyeon can be regarded as remarkable itinerant monks as they were appeared to engrave Buddhist scriptures in not only Hwanghae Province and also other regions by moving from one place to another.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meaningful as a paper that can be used on future studies to compare Buddhist scriptures engraved on woodblock in other regions in North Korea.

키워드: 황해도, 개판불서, 불서, 명종, 용감수감, 월정사, 석두사, 심원사, 귀진사, 도성, 수연
Hwanghae Province, Woodblock Engraving Works, Buddhist scriptures, King Myeongjong, Yonggamsugyeong, Woljeongsa Temple, Seokdusa Temple, Simwonsa Temple, Guijinsa Temple, Doseong, Suyeon

* 이 논문은 2015년도 국가연구장학금(인문사회계)의 지원에 의해 작성되었음.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gsong@cau.ac.kr) (제1저자)

***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석사과정(yun21dh@hanmail.net) (공동저자)

논문접수일자: 2016년 1월 26일 최초심사일자: 2016년 1월 26일 게재확정일자: 2016년 2월 14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0(1): 395-416, 2016. [http://dx.doi.org/10.4275/KSLIS.2016.50.1.395]

1. 서 언

지난해는 해방 70주년인 동시에 남북이 분단된 지 70년이 되는 해였다. 이처럼 남북이 분단된 이래 북한지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없는 상황이 오래되어 자연 이 지역에 관한 연구가 등한시되어 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을 답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수행하는 실증적인 연구보다는 간혹 문헌 중심의 학술 활동이 보일 뿐이다. 이 연구는 조선시대 황해도 지방에 소재하였던 사찰에서 開板한 불서를 대상으로 그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해당 지역의 사찰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국내의 여러 사찰과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불서와 목록에서 관련 정보를 입수하여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황해도는 멀리서 고조선이 아사달에 도읍을 정한 이후 한나라에서 이곳에 군현을 설치하였고, 고려시대는 인근의 개성부에 수도를 두었을 만큼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였다. 그러나 오히려 거란과 몽고 등 북방의 침입 길로 빈번하게 피해를 입었으며, 조선시대에는 임진과 병자 양난의 주요 격전지이었기 때문에 심각한 참화를 당하였던 지역이다. 그 뿐만 아니라 중국으로 오가는 사행단이 반드시 거쳐 가는 최선의 교통로 기능함으로써 여기에 소용되는 비용 또한 적지 않았다. 그래서 이중환의 『擇里志』에서도 “황해도는 전략적으로 이용할 만한 요지이나, 세상에 변고가 발생하면 서로가 다투게 될 요충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이 오히려 단점이다”고 지적한 바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황해도는 북한지역에서 평안도와 더불어 비교적 넓은 평야지대가 있고 서해와 연이어 있어 평상시에는 물산이 풍부하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었다. 그리하여 이러한 이점으로 고려시대에는 개경 주변에 수많은 사찰이 세워졌으며, 조선시대에도 비교적 한양과는 거리가 가까워 왕실에서 지원하는 사찰도 적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조선시대 북한지역에서 불서를 개판한 사찰이 황해도 면적의 두 배 이상인 평안도가 28곳으로 가장 많으며 함경도는 10여 곳에 불과한데, 황해도는 24곳의 사찰에서 개판하였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조선시대 황해도는 면적 대비 가장 많은 사찰에서 가장 많은 불서를 개판한 지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조선시대 황해도 지방의 사찰에서 개판한 불서를 대상으로 각 지역의 사찰별 불서 개판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개판 시기별 현상과 불서의 성격 등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종래 이와 관련된 연구는 귀진사라는 특정 사찰에서 개판된 불서만을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 외에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이상백 2014). 그러나 이 연구는 황해도 전 지역의 사찰에서 간행된 불서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 지역단위의 사찰별 특성 파악이 가능하며, 이를 토대로 향후 북한의 다른 지방 또는 전국 단위와의 비교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통계자료로써 유의미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황해도 사찰본의 개관사실

2.1 사찰별 개관현황

전국의 사찰을 비롯하여 개인과 도서관에 소장된 조선시대 황해도 지방의 사찰에서 개관된 불서는 모두 85종으로 파악되었다. 이 85종을 대상으로 개관 사찰과 지역별로 구분하여 전체 현황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황해도 지방 사찰에서 개관된 불서는 남부지역에 소재하는 사찰에서 개관된 불서는 35종으로 전체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북부지역에 소재하는 사찰에서 개관된 불서는 50종으로 전체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일 사찰에서 가장 많은 개관을 보인 곳은 문화 구월산에 소재하고 있는 월정사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사찰에서는 모두 13종을 개관하여 15%를 차지하고

<표 1> 황해도 소재 사찰의 개관 현황

圈域	地域	寺刹	종수(%)	
			사찰별	지역별
남부권(40%)	文化 九月山	月精寺	13(15)	21(24%)
		月出庵	1(1)	
		貝葉寺	3(4)	
		興律寺	4(5)	
	松禾 大藥山	修甌寺	4(5)	4(5%)
	恩栗 九月山	長佛寺	2(2)	2(2%)
	長淵 佛陀山	千佛寺	2(2)	3(3%)
		鶴林寺	1(1)	
	海州 首陽山	神光寺	5(6)	5(6%)
소계			35(40%)	35(40%)
북부권(60%)	開城 大興山	龍泉寺	1(1)	1(1%)
	谷山 高達山	佛峯庵	2(2)	2(2%)
	瑞興 高德山	俱衆寺	1(1)	17(20%)
		歸進寺	8(10)	
		星宿寺	3(4)	
		慈悲嶺寺	5(6)	
	遂安 大靑山	水淨寺	1(1)	6(7%)
		中庵	4(5)	
		靑庵寺	1(1)	
	兎山 鶴鳳山	佛會庵	1(1)	12(15%)
		石頭寺	11(14)	
	平山 慈母山	烟峰寺	1(1)	1(1%)
	黃州 慈悲山	松方寺	1(1)	11(14%)
		深源寺	10(12)	
소계			50(60%)	50(60%)
총계			85(100%)	85(100%)

있다. 그 다음 토산 석두사 11종(14%), 황주 심원사 10종(12%), 서흥 귀진사 8종(10%) 순위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 4곳의 사찰에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량을 보이고 있다. 그 외의 사찰에서는 대략 평균 2-3종의 불서를 개관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가장 많은 불서를 개관한 지역은 문화의 구월산으로 이곳에는 월정사 외에 패엽사와 홍율사 등이 소재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는 모두 21종이 개관되어 전체 24%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은 서흥의 고덕산으로 이곳에는 귀진사 외에 성수사와 자비령사 등 전통적인 사찰이 소재하고 있어 모두 17종이 개관되어 전체 20%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토산의 학봉산과 황주의 자비산 지역에서 각각 12종(15%)과 11종(14%)을 보이고 있어 이들 4개 지역에서 전체 72%를 개관하였다.

이상과 같은 개관 현황을 보이고 있는 황해

도 지방의 간행불서를 분단 이후 북한에서 조정된 행정구역을 참고하여 남북지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2.2 남부지역 사찰

황해도 남부지역은 황주와 개성을 축으로 서해 방향의 남서쪽에 위치한 지역을 말한다. 이 지역의 가장 큰 고을은 해주목이며 白川, 延安, 文化, 安岳, 恩栗, 松禾, 長淵 등이 위치하고 있다. 이곳의 유명한 산은 구월산이 문화와 은울을 둘러싸고 있고, 그 남쪽으로 해수에 수양산과 장연의 불타산이 연달아 이어져 있다. 이들 산에는 월정사와 신광사, 그리고 장불사와 천불사가 소재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조선시대에 수많은 불서들이 개관된 사실이 보이고 있다. 조선시대 이들 사찰을 중심으로 개관된 불서는 대략 <표 2>와 같다.

<표 2> 조선시대 황해도 남부지역의 개관사실

地域	寺刹	書名	開板年	刊行記錄	비고	연구대상본
文化 九月山	月精寺	誠初心學人文	1574	萬曆2年甲戌(1574)季夏九月山月精寺開刊	五法語, 法語略錄	국중
		高峯和尚禪要	1573	萬曆元年(1573)癸酉孟冬黃海道文化地九月山月精寺開刊	牌記	범어사
		大慧普覺禪師書	1574	萬曆2年甲戌(1574)季夏日黃海道文化地九月山月精寺開板	李穡跋	개인
		大慧普覺禪師書	1642	崇德壬午(1642)6月日黃海道九月山月精寺留板	李穡跋, 揀病論	규장각
		佛說大目蓮經	1663	康熙3年癸卯(1663)月日開刊留板文化月精	九月山行跡/李穡	개인
		禪門綱要集	[1664]	九月山月精寺留板	印出記	영남대
		禪源諸詮集都序	1645	順治3年乙酉(1645)月日黃海九月山月精寺留板	牌記	국중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	1639	崇禎(12年)己卯(1639)12月日九月山月精寺留版	牌記	동국대
		天地冥陽水陸儀文	1663	康熙3年癸卯(1663)月日開刊留板文化月精	九月山行跡/李穡	연세대
		天台四教儀略抄	1654	順治甲午(1654)2月日黃海道文化九月山月精寺留板	唯一板	산기

地域	寺刹	書名	開板年	刊行記錄	비고	연구 대상본
文化 九月山	月精寺	玄中銘註	1647	順治4(1647)年丁亥刊留阿斯山月精	唯一板	송광사
		護法論	1648	順治5年戊子(1648)元月日黃海道文化九月山月精寺留板	李穡跋	개인
		黃檗山斷際禪師傳心法要	1645	順治3年乙酉歲(1645)秋月日黃海道九月(山)月精(寺)	李穡跋	규장각
	月出庵	佛說阿彌陀三耶三佛薩樓佛壇過度入道經	1866	同治4年丙寅(1866)8月日板刻藏于九月山月出庵	대장경	성균관대
	貝葉寺	金剛般若波羅密經	1564	嘉靖43年甲子(1564)3月日黃海道文化地九月山貝葉寺開板	圖像本	규장각
		妙法蓮華經	1564	嘉靖43年甲子(1564)2月日黃海道文化地九月山貝葉寺開板	乙亥字系	동국대
		佛說大報父母恩重經	1564	嘉靖43年甲子(1564)8月日黃海道文化地九月山貝葉寺刊板	諺解, 圖像	동경대
	興律寺	妙法蓮華經	1656	順治13年丙申(1656)4月日黃海道文化地九月山興栗寺留	花岩寺系 隱休記	국중
		佛說預修十王生七經	1574	萬曆2年甲戌(1574)未月日黃海道文化土九月山興栗寺刊板藏于月精寺	圖像本	개인
		佛說大目蓮經	1575	萬曆3年乙亥(1575)3月黃海之西九月山興栗(寺)開刊月精寺留		개인
		念佛普勸文	1765	乾隆30年(1765)3月日九月山興律寺開刊	明衍序, 회심자책가	국중
松禾 大藥山	修甌寺	看話決疑論	1616	萬曆44年丙辰(1616)季冬日黃延道松禾修甌留板	大慧書	국중
		狗子無佛性揀病論	1617	萬曆45年丁巳(1617)仲夏日黃延道松禾水甌開刊	합철	국중
		大乘起信論疏	1616	萬曆44年丙辰(1616)春黃海道松禾縣大藥山修甌寺開刊	世祖跋, 甲寅字覆刻	국중
		圓頓成佛論	1617	萬曆45年丁巳(1617)仲夏日黃延道松禾水甌開刊	합철	국중
恩栗 九月山	長佛寺	妙法蓮華經	1420	永樂18年庚子(1420)8月日九月山長佛寺開板	省据書	공인 박물관
		佛說長壽滅罪陀羅尼經	1420	永樂18年庚子(1420)8月日九月山長佛寺開板		문헌조사
長淵 佛陀山	千佛寺	金剛般若波羅密經	1576	萬曆4年丙子(1576)夏4月日黃海道長淵地佛陀山千佛寺開刊		성암
		禪宗永嘉集	1575	萬曆3年乙亥(1575)之春...黃海道長淵佛陀山千佛寺開刊	跋文	계명대
	鶴林寺	四溟根源錄	1768	時乾隆33年戊子(1768)流月日黃海道長淵松月山鶴林寺四溟堂留板	唯一板	국편
海州 首陽山	神光寺	觀世音菩薩靈驗略抄	1732	雍正10年壬子(1732)11月日黃海道首陽山神光留板		고대
		妙法蓮華經觀世音菩薩普門品(諺解)	1697	康熙36年丁丑(1697)7月日黃海道海州神光寺開刊	變相, 한글 車悟敍	동대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	1570	隆慶4年庚午(1570)夏黃海道海州神光寺開板		국중
		禪源諸詮集都序	1570	隆慶4年庚午(1570)秋黃海道海州山神光寺開板	2권	불갑사
		現行西方經	1556	嘉靖35年丙辰(1556)7月日黃海道海州山神光寺開板	元岳錄	영남대

이상과 같이 조선시대 황해도 남부지역에 소재하는 사찰에서 개관된 불서는 문화, 송화, 은율, 장연, 해주 등 5개 지역의 9개 사찰에서 모두 35종의 불서가 간행되었다. 이들 지역 가운데 주목되는 지역은 구월산이 위치하는 문화로 월정사, 월출암, 패엽사, 홍률사 등의 사찰에서 전체 35종 중에 무려 21종이 개관된 사실을 파악하였다.

이 중 조선시대 전국의 사찰에서 유일하게 황해도 사찰에서만 개관된 불서는 문화의 월정사에서 개관된 『천태사교의약초』와 『현중명주』가 있으며, 장연의 학림사에서 개관된 『사명근원록』이란 서적으로 파악되었다. 『천태사교의약초』는 산기문고에 소장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현재의 소장처는 미상이다(山氣文庫目錄 1974, 147). 『현중명주』는 1647년 판본이 순천의 송광사에 유일본이 소장되어 있는데, 이 불서는 조동종을 개창한 洞山 良介(807-869)가 후학자들에게 지침이 될 만한 意旨를 代語와 義의 형식으로 밝힌 저술이다. 권수에는 宗湛이 泰和 5년(1205)에 쓴 서문이 수록되어 있어 주목되며, 간기미상의 판본이 국립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는데, 이 월정사 판의 모본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명근원론』은 1768년에 학림사에서 개관되어 현전본이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되어 있다. 그런데 이 책은 임진왜란 때 활약한 사명당 惟政(1544-1610)에 대해 영조 말년에 와서 그를 재평가하면서 편찬한 불가의 계보로 사명당의 根源과 支派에 대해서 그 법계를 밝힌 것이다. 위로는 태고 보우로부터 서산 휴정

까지의 한국 선가의 법계를 기술하여 뿌리를 밝히고 아래로 그의 3세 문도까지의 지파를 수록하고 있다. 다만 승려 벽담(碧潭)이 서문에 유정의 출신을 '西河君 任公'의 후손 任守城의 아들로 기술하였는데, 이를 '豐川' 출신으로 잘못 이해하여 그의 가계에 대한 논란이 야기되었던 듯하다.

2.3 북부지역 사찰

황해도 북부지역은 황주와 개성을 축으로 내륙 방향의 북동쪽에 위치한 지역을 말한다. 이 지역의 가장 큰 고을은 개성부¹⁾와 황주목이며 곡산, 서흥, 수안, 토산, 평산 등이 위치하고 있다. 이곳의 유명한 산은 자비산과 고덕산이 황주와 서흥을 둘러싸고 있고, 그 동쪽으로 수안에 대청산이 아래로 토산의 학봉산으로 뻗어 내려가 있다. 이 중 서흥의 고덕산에는 구중사, 귀진사, 성수사, 그리고 자비령사 등이 소재하고 있고, 수안의 대청산에는 수정사와 청암사 등이 자리하고 있다. 이들 사찰에서는 조선시대에 수많은 불서들이 개관된 사실이 보이고 있는데, 조선시대 이들 사찰을 중심으로 개관된 불서는 대략 <표 3>과 같다.

이상과 같이 조선시대 황해도 북부지역에 소재하는 사찰에서 개관된 불서는 개성부와 황주목을 비롯하여 곡산, 서흥, 수안, 토산, 평산 등 7개 지방의 15개 사찰에서 모두 50종의 불서가 간행되었다. 이들 지역 가운데 주목되는 지역은 고덕산이 위치하는 서흥으로 이곳에는 구중사, 귀진사, 성수사, 자비령사 등의 사찰에서 전

1) 개성부는 한국전쟁 이후 개성시로 변경되었으나,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이 황해도와 밀접해 있어 편의상 포함하였다.

〈표 3〉 조선시대 황해도 북부지역의 개관사실

地域	寺刹	書名	開板年	刊行記錄	비고	연구 대상본
開城 大興山	龍泉寺	佛說大報父母恩重經	1717	康熙56年丁酉(1717)8月開刊開城府大興山城龍泉寺留置	한글갈 p.177	고려사
谷山 高達山	佛峯庵	儒釋質疑論	1591	萬曆21年辛卯(1591)3月日高達山佛峯庵開板	2권	국중
		天地冥陽水陸齋儀	1586	萬曆14年(1586)仲夏黃海道谷山郡高達山佛峯庵開板		국중
瑞興 高德山	俱衆寺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	1562	嘉靖41壬戌(1562)8月日高德山俱衆寺刊板	仁嬪金氏	장서각
	歸進寺	誠初心學人文	1572	隆慶6年壬申(1572)黃海道瑞興地崇德山歸眞寺開板	四法語 法語略錄	서울대
		金剛經五家解	1558	嘉靖36年戊午(1558)2月日黃海道瑞興地高德山歸眞寺刊板	2권	보림사 장서각
		大方廣佛華嚴經疏	1557-1564	嘉靖36丁巳(1557)7月日-嘉靖43甲子(1564)春畢黃海道瑞興地高德山歸進寺開板	120권	개인
		妙法蓮華經	1513	正德8年癸酉(1513)春3月日[黃海道]瑞興地[崇德山]歸進寺開板	大字本 打牛跋	백련암
		妙法蓮華經	1554	嘉靖33年甲寅(1554)孟春日黃海道瑞興地崇德山歸進寺開刊	花岩寺系	보성선원
		佛祖三經	1550	嘉靖29年(1550)孟夏日黃海道瑞興地歸進寺留板 平安道平壤府開刊	蒙山敍	동국대
		蓮經別讀	1546	嘉靖25年丙午(1546)黃海道崇德山歸眞寺開刊	雪岑序	동국대
		龍龕手鑑	1563	嘉靖42年(1563)高德山歸眞寺開刊	唯一板	규장각
	星宿寺	大佛頂如來蜜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1559	嘉靖38(1559)年己未 9月日黃海道瑞興地高德山星宿寺成板	10권	동국대
		佛說大報父母恩重經	1555	嘉靖34年乙卯(1555)6月日黃海道瑞興地高德山星宿寺刊板	胎骨經	개인
		十地經論	1557	嘉靖36年丁巳(1557)8月日黃海道瑞興地高德山星宿寺刊板	10권	송암사
	慈悲嶺寺	大佛頂如來蜜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1489	弘治2年己酉(1489)8月20日黃海道瑞興地慈悲山慈悲嶺寺留板	10권 道隱跋	고려대
		蒙山和尚六道普說	1490	弘治3年(1490)7月日黃海道瑞興地慈悲嶺寺開板	殊菴書	보림사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1490	弘治3年庚戌(1490)7月日瑞興地慈悲山慈悲嶺寺開板	手印	원각사
		六經合部	[1490]	黃海道瑞興地慈悲嶺寺開板		원각사
		地藏菩薩本願經	1489	弘治2年己酉(1489) 黃海道瑞興地慈悲嶺寺刊	서지연표 p.38	문헌조사
遂安 大青山	水淨寺	佛說大報父母恩重經	1546	嘉靖25年丙申(1546)春3月日黃海道遂安土彦眞山水淨寺開板	圖像本	개인
	中庵	妙法蓮華經	1564	嘉靖43年甲子(1564)8月日黃海道遂安大青山中庵開板	7권 화암사계	보림사
		法華靈驗傳	1565	嘉靖44年乙丑(1565)8月日黃海道遂安]大青山中庵開板	2권	장서각
		地藏菩薩本願經	1562	嘉靖41年壬戌(1562)6月日黃海道遂安地大青山中庵開刊	도성암판 복각	유가사
		賢首諸乘法數	1566	嘉靖45年丙寅(1566)仲月24日黃海道遂安地大青山中庵開板	燈谷跋	송광사
	靑庵寺	六祖大師法寶壇經	1558	嘉靖37年戊午(1558)7月日黃海道遂安土阿達山靑庵寺開板 慈悲山深原寺移在	萬恒跋	규장각

地域	寺刹	書名	開板年	刊行記錄	비고	연구 대상본
兎山 鶴鳳山	佛會庵	蒙山和尚六道普說	1565	嘉靖44年乙丑(1565)秋黃海道兎山地高達山佛會庵開刊板致於鶴鳳山石頭寺留置	石頭寺 留置	개인
	石頭寺	大佛頂首楞嚴經	1547	嘉靖26年(1547)8月黃海道兎山鶴鳳山石頭寺留板	10권	개인
		大慧普覺禪師書	1546	嘉靖25年(1546)丙午6月日鶴鳳山石頭寺刊施	文昌跋	보림사
		妙法蓮華經	1543	嘉靖22年癸卯(1543)6月日黃海道兎山地鶴鳳山石頭寺留板	7권 花岩寺系	원각사
		佛說觀無量壽佛經	1558	嘉靖37年戊午(1558)潤7月日黃海道兎山地鶴鳳山石頭寺留板	變相圖	개인
		佛說大報父母恩重經	1546	嘉靖25年丙午(1546)7月日留板于黃海道兎山鶴鳳山石頭寺	圖像本	관문사
		禪宗永嘉集	1542	嘉靖21年(1542)閏5月日兎山地鶴鳳山石頭寺開板	2권	불갑사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1559	嘉靖38年己未(1559)8月日黃海道兎山地鶴鳳山石頭寺留板		국중
		禮念彌陀道場懺法	1542	嘉靖21年(1542)閏午月日黃海道兎山地鶴鳳山石頭寺開板	天啓元年 王妃柳氏	법주사
		地藏菩薩本願經	1558	嘉靖37年戊午(1558)閏7月日黃海道兎山地鶴鳳山石頭寺開板	3권	개인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1546	嘉靖25年丙午(1546)7月日鶴鳳山石頭寺留板		국중
		涵虛堂得通和尚顯正論	1544	嘉靖23年甲辰(1544)正月日黃海道兎山地鶴鳳山石頭寺開板		개인
平山 慈母山	烟峰寺	妙法蓮華經	1559	嘉靖38年己未(1559)年暮春仲辭日黃海道平山地慈母山烟峰寺開板	7권 花岩寺系	대둔사
黃州 慈悲山	松方寺	佛說長壽滅罪陀羅尼經	1569	隆慶3年己巳(1569)3月日黃海道黃州地西面聖住山松方寺留板		연세대
	深源寺	金剛經五家解	1524	嘉靖3年乙酉(1524)春黃海道黃州地慈悲山深源寺留板		왕산사
		南明泉和尚頌證道歌	1526	嘉靖5年丙戌(1526)6月日慈悲山深源寺開板	고려본 복각	보림사
		蒙山和尚法語略錄(諺解)	1525	嘉靖4年乙酉(1525)夏黃海道黃州地慈悲山深源寺留板 希世書	諺解本	수국사
		妙法蓮華經	1539	嘉靖十八年己亥(1539)孟秋黃海道黃州牧慈悲山深源寺留板	전7권 花岩寺系	수국사
		般若心經疏顯正記	1553	嘉靖32年癸丑(1553)五月日黃海道黃州土慈悲山深源寺開板	간경도감본 복각, 唯一板	규장각
		佛果圓悟禪師碧巖錄	1526	嘉靖5年丙戌(1526)5月日黃海道黃州牧深源寺留板	唯一板 전4권	관문사
		佛說長壽滅罪陀羅尼經	1536	嘉靖15年丙申(1536)6月日黃州地深源寺開刊	天尊像	국중
		五大眞言集(諺解)	1535	嘉靖14年乙未(1535)黃海道慈悲山深源寺刊	靈驗略抄	개인
		六經合部	1555	嘉靖34(1555)年黃海道黃州土西面加乙池李順才家開板 慈悲山深源寺移置	圖像	개인
		禪林寶訓	1555	嘉靖34年乙卯(1555)孟夏黃海道黃州地加乙池里李順才家開板	2권	국중

체 49종중에 17종에 달하는 불서가 개관된 사실을 보이고 있다.²⁾

이 중 조선시대 전국 사찰에서 유일하게 황해도 북부지역의 사찰에서만 개관된 불서는 서흥의 귀진사에서 개관된 『龍龕手鑑』, 그리고 황주의 심원사에서 개관한 『반야심경소현정기』와 『碧巖錄』으로 파악된다. 이 『용감수감』은 본래 997년에 요나라 승려 行均이 여러 불서 가운데 切韻과 訓詁 등 모두 16만자를 모아서, 이를 4권으로 편찬하고 ‘龍龕手鑑’으로 이름을 부친 字典이다. 그 후 송나라에서는 傅欽이 이 책을 입수하여 당시 절서의 관리로 있던 蒲傳正이 1087년(元祐 1)에 중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때 송나라에서 중간하면서 송 태조의 조부 趙敬의 이름 ‘敬’자를 피휘하는 바람에 ‘龍龕手鑑’이란 이름으로 서명이 바뀌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12세기 무렵에 전라도 나주에서 遼本을 복각한 판본이 국보로 지정되어 있으며, 조선시대 1472년에 왕실의 지원으로 宋板本을 저본으로 『龍龕手鑑』을 간행한 사실이 보이고 있으나 그때 간행한 왕실본은 현전하지 않고 있다. 다만 1563년에 황해도 귀진사에서 왕실본을 저본으로 복각 간행하여 요본과 이를 중간한 송본의 면모를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또한 『벽암록』은 송나라 임제종 양기파의 대표적 선승인 圓悟 克勤(1063-1135)은 雪竇 重顯(980-1052)이 역대 조사들의 화두에서

100칙을 가려 뽑아서 頌을 부친 ‘頌古百則’에 대해 垂語와 評唱을 달아서 1125년에 10권으로 편찬한 公安集의 일종이다. 이 책은 근래 고려본의 존재가 알려져 있으나 잔권에 불과한 상태이며, 다만 세조 때 1465년에 교서관에서 乙酉字로 인출한 완전본이 국내에 남아 있다(송일기, 정왕근 2015, 232-234). 현재 사찰에서 간행된 판본은 황주의 심원사에서 1526년에 개관한 것이 유일한데, 비록 이를 인출한 현전본은 4권에 불과하여 유감이나 을유자본을 저본으로 복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다(송정숙 2014, 132-140). 그리고 『현정기』는 송나라 仲希가 法藏의 『반야심경약소』에 주석을 붙여 편찬한 것으로, 이 책은 이미 1464년에 간경도감에서 언해본을 간행한 바 있다. 심원사에서는 전국의 사찰 가운데 유일하게 이 간경도감본을 저본으로 1553년에 복각 간행한 것이다.

그런데 황해도 지역 최대의 개관불사는 서흥의 귀진사에서 玄秀 등이 주관하여 1557년에 착수하여 1564년에 완료한 『화엄경소』의 간행일 것이다. 이 개관불사에는 당시 왕실의 세력자인 문정왕후(1501-1565, 尊號는 成烈仁明)의 절대적 지원 아래 선교 양종의 판종사인 普雨와 天則이 가담하고 황해도 주요 사찰의 주지가 참여한 사실이 간기면에 기재되어 있다. 주지하다시피 『화엄경소』는 당나라 澄觀이 주석한 것에 송나라 淨源이 다시 주소를 추가하여

2) 필자는 수년전에 『恩重經』의 판본 연구에서 현재 아단문고에 소장되어 있는 “嘉靖21(1548)年6月日 始普勸大勝妙法蓮華經·十玄談譯·父母恩重經”이란 간기를 갖고 있는 판본에 정작 간행 사찰명이 생략되어 있어 ‘岡雄’과 ‘信熙’라는 각수명에 근거하여 황해도 귀진사에서 개관된 것으로 추정된 사실이 있으나, 근래 같은 해에 함께 개관된 『十玄談譯解』에 정확한 간기가 있는 판본이 새로 발견되었다. 이에 간기와 각수명을 통해 아단본 『은중경』이 강화도의 마니산 淨水寺에서 개관된 사실이 확인되어 이 글에서 바로 잡는다(송일기, 2000a, 韓國本〈父母恩重經: 漢文〉의 板本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19: 201).

이를 120권으로 편찬한 것으로, 정원이 송나라에서 이를 판각하여 고려 대각국사 의천에게 보내 주어 고려시대에 이미 널리 유통되었던 교학의 대표적인 주석서이다. 이처럼 무려 120권에 달하는 거질이라서 이 개판불사는 왕실은 물론 불교계 모두가 대역사로 인식하고, 특히 황해도 모든 사찰이 동참하여 완성을 보게 되었다.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현전본 중 극히 일부 수량에 운학문이 들어 있는 남색비단으로 장황한 책이 보이고 있는데, 이는 당시에 왕실의 진상본이 아닌가 한다.

이상과 같이 황해도 남부지역의 사찰에서 35종, 북부지역의 사찰에서 50종의 불서가 개판되어 조선시대 황해도에서는 85종의 불서가 개판된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이들 불서 가운데 은율의 장불사에서 1420년에 개판된 『묘법연화경』이 가장 빨리 간행되었으며, 그리고 문화의 월출암에서 1866년에 개판된 『불설아미타경』이 가장 늦은 시기에 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황해도 사찰본의 특성 분석

3.1 시기별 분석

조선시대 황해도에 소재하는 사찰에서 개판된 불서는 모두 85종으로 파악되었다. 이들 85종의 불서를 개판된 연도를 기준으로 정리해 보면,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조선시대 황해도에서 개판된 불서를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조선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조선 전기는 총 85종 가운데 무려 64종에 달하는 불서가 이 시기 동안 간행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비해 조선 후기에는 21종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선 전기의 개판 사실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초기 세종과 성종시대에는 각각 2종과 5종이 개판되어 전체 8%를 차지하고 있으나, 중종시대에는 12종으로 전체 15%를 차지하고 있어 전대에 비해 간행수량이 매우 증가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다음 왕대인 명종 시대에는 무려 32종이 개판되어 전체 38%에 달하는 폭발적인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이 요구된다 하겠다.

황해도는 고려시대 수도인 개성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에 전통적으로 고려 이래로 많은 사찰이 존치되었으며, 조선시대에도 서울인 한양과는 서해 수로나 우마를 이용한 관서 지역 교통편이 발달해 있었다. 이 시기는 점차 성리학으로 무장한 사림세력이 강력해지면서 왕실에서 직접 주관하던 불사가 대부분 중단 또는 차단되는 상황이었으며, 내수사의 지원을 받은 사찰이 서울권을 벗어나 그 주변 지역인 황해도 지역으로 파급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명종 대에 들어 와서 호불 성향의 문정왕후의 등장으로 연산군 이래 폐지된 선교양종의 승정체제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고, 양민들은 군역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사찰로 도망하여 승려가 증가하는 현상이 뚜렷해 졌다. 이들 승려는 내원당의 통제로 잡승에서 점차 도첩이나 호패를 받거나 승과에 합격한 양질의 승려 계층으로 변화되었다. 그러나 명종 말년에 호불 성향의 문정왕후가 사망한 이후 이러한 불교정책은 곧 바로 혁파되어 불

〈표 4〉 황해도 개관 불서의 시기별 분석

구분	시대	書名	종수(%)	
			세부	전체
조선전기	세종	妙法蓮華經(1420), 佛說長壽滅罪陀羅尼經(1420)	2(2%)	64종 (75%)
	성종	大佛頂首楞嚴經(1489), 地藏菩薩本願經(1489), 蒙山和尚六道普說(1490),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1490), 六經合部(1490)	5(6%)	
	중종	妙法蓮華經(1513), 金剛經五家解(1524), 蒙山和尚法語略錄(諺解)(1525), 南明泉和尚證道歌(1526), 佛果園悟禪師碧巖錄(1526), 五大真言集諺解(1535), 佛說長壽滅罪陀羅尼經(1536), 妙法蓮華經(1539), 禪宗永嘉集(1542), 禮念彌陀道場儀法(1542), 妙法蓮華經(1543), 涵虛堂得通和尚顯正論(1544)	12(14%)	
	명종	大慧普覺禪師書(1546), 佛說大報父母恩重經(1546), 佛說大報父母恩重經(1546), 蓮經別讚(1546),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1546), 大佛頂首楞嚴經(1547), 佛祖三經(1550), 般若心經疏顯正記(1553), 妙法蓮華經(1554), 佛說大報父母恩重經(1555), 禪林寶訓(1555), 六經合部(1555), 現行西方經(1556), 十地經論:明地(1557), 金剛經五家解(1558), 佛說觀無量壽佛經(1558), 六祖大師法寶壇經(1558), 地藏菩薩本願經(1558), 大佛頂首楞嚴經(1559), 妙法蓮華經(1559),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1559), 佛說長壽滅罪陀羅尼經(1562), 地藏菩薩本願經(1562), 龍龕手鑑(1563), 金剛般若波羅密經(1564), 大方廣佛華嚴經疏(1557-1564), 妙法蓮華經(1564), 妙法蓮華經(1564), 佛說大報父母恩重經(1564), 蒙山和尚六道普說(1565), 法華靈驗傳(1565), 賢首諸乘法數(1566)	32(38%)	
	선조	佛說長壽滅罪陀羅尼經(1569),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1570), 禪源諸詮集都序(1570), 誠初心學人文(1572), 高峯和尚禪要(1573), 誠初心學人文(1574), 大慧普覺禪師書(1574), 佛說預修十王生七經(1574), 佛說大目蓮經(1575), 禪宗永嘉集(1575), 金剛般若波羅密經(1576), 天地冥陽水陸齋儀(1586), 儒釋質疑論(1591)	13(14%)	
조선후기	광해군	看語決疑論(1616), 狗子無佛性揀病論(1617), 大乘起信論疏(1616), 圓頓成佛論(1617)	4(5%)	21종 (25%)
	인조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1639), 大慧普覺禪師書(1642), 禪源諸詮集都序(1645), 黃檗山斷際禪師傳心法要(1645), 玄中銘註(1647), 護法論(1648)	6(7%)	
	효종	天台四教儀略抄(1654), 妙法蓮華經(1656)	2(2%)	
	현종	佛說大目蓮經(1663), 天地冥陽水陸儀文(1663), 禪門綱要集(1664)	3(4%)	
	숙종	妙法蓮華經觀世音菩薩普門品(1697), 佛說大報父母恩重經(1717)	2(2%)	
	영조	觀世音菩薩靈驗略抄(1732), 念佛普勸文(1765), 四溟根源錄(1768)	3(4%)	
	고종	佛說阿彌陀經(1866)	1(1%)	
합계			85 (100%)	85 (100%)

교계는 다시 방입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손성필 2013, 80-94). 그리하여 선조시대에 들어와 불서의 개관 현상은 불과 13종이 간행되어 다시 중종 대 수준 아래로 환원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조선 전기 명종시대는 선교양종 체제가 복귀되고 도첩제나 승과제가 실시되어 양승들이 배출되었던 한시적 불교정책에 따라 사찰에서도 강원교육이 실시되면서 학습에 필요한 강원교재 불서를 비롯하여 공덕용 불서와 선종

관련 불서의 간행이 증가되었던 양상을 보이게 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 황해도 지방의 불서 개관 현상은 전체 85종 가운데 21종에 불과하여 거의 단절 상태로 쇠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왕대 순으로 세부적 현상을 살펴보면, 광해군과 인조시대에 각각 5종과 6종이 개관되어 전체 13%를 차지하고 있는데, 효종이후 고종 때까지 5대 왕대에서 간행된 수량이 9종에 불과하여 후기로 가면서 개관 전통이 거의 사

라져 버렸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황해도 지방에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경향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을 보이나, 유독 이 황해도 지방에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원인 중 하나로 임진과 병자 양란을 거치면서 황해도의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인적 물적 자원의 막대한 부담을 우선적으로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지역은 평상시에도 중국을 오가는 조선과 명청 사신들이 반드시 머물러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이곳에서 대부분 충당하였다. 특히 임진 난에는 명과 왜가 장기간 이 지역에 진을 치고 있어 생업이 곤란한 처지에 막대한 군비를 마련하거나 약탈을 당하는 상태가 한 동안 지속되었다. 또한 왜란이 끝나자 이번에는 명과 후금이 대결하면서 동강진에 주둔하고 있던 毛文龍은 막대한 군비를 요구해 왔으며, 이후로 후금이 쳐들어와서 동일하게 부담을 주자 민간의 살림살이는 극도로 피폐되었다.

여기에 효종 이후 현종 대는 황해도 지역에 기상이변으로 질병과 재해가 계속되어 수많은 사람이 죽어 나가 생산력이 극히 저하되었다. 이에 민심은 극도로 흉흉해지고 자연 불만과 저

항 세력이 강하게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민심이 피폐된 상황을 틈타서 숙종 대에는 處瓊과 呂還 등이 생불을 자처하고 미륵불이 화현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민심을 호도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였다(최선헌 2013). 이 생불 사건은 단지 숙종대에 그치지 않고 영조대에서도 다시 출현하였는데, 이는 당시 저층민의 사회에 대한 저항 의식의 일면을 보여준 사건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양란을 거치면서 황해도 지방의 지정학적 위치에 따라 민간의 재정 상황은 극도로 악화되었고, 연달아 발생한 생불사건 등 이러한 정치적 혹은 사회적인 환경변화가 다분히 민간의 시주로 출판비용을 대부분 충당했던 점을 감안해 보면 조선후기 황해도 지방의 불서 개편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3.2 주제별 분석

조선후기 황해도 지방에 소재한 사찰에서 개편된 85종의 불서를 필자가 작성한 불교문헌 분류체계에 의거하여 분류하여 불서의 성격과 간행 경향을 살피고자 한다.³⁾ 이에 따라 85종의

3) 필자가 불교문헌을 분류하기 위해 신수대장경목록과 불교대학 도서관분류표 등을 참고하여 아래와 같은 〈佛敎文獻分類表〉를 고안하여 사용하였다.

類目	A 經典類	B 律典類	C 論書類	D 註疏類	E 宗義類	F 史傳類	G 禮懺類	H 詩文類
細部項目	1 般若部	1 小乘部	1 釋經部	1 般若部	1 天台宗	1 傳記部	1 法儀式	1 韓國撰述
	2 法華部	2 大乘部	2 毘曇部	2 法華部	2 法相宗	2 靈驗部	2 齋儀式	2 中國撰述
	3 華嚴部		3 論集部	3 華嚴部	3 華嚴宗	3 寺誌部		3 諸國撰述
	4 寶積部			4 寶積部	4 禪宗	4 目錄部		
	5 涅槃部			5 涅槃部	5 淨土宗	5 事典部		
	6 經集部			6 經集部				
	7 密教部			7 密教部				
	8 諸經部			8 律典部				
				9 論書部				

〈표 5〉 황해도 개판불서의 주제별 분석

大分類	小分類	書名	종수(%)	
			세분	전체
經典類	般若部	金剛經五家解(1524), 金剛經五家解(1558), 金剛般若波羅密經(1564), 金剛般若波羅密經(1576)	4(5%)	38종 (44%)
	法華部	妙法蓮華經(1420), 妙法蓮華經(1513), 妙法蓮華經(1539), 妙法蓮華經(1543), 妙法蓮華經(1554), 妙法蓮華經(1559), 妙法蓮華經(1564), 妙法蓮華經(1564), 妙法蓮華經(1656), 妙法蓮華經觀世音菩薩普門品(1697)	10(12%)	
	寶積部	佛說觀無量壽佛經(1558), 佛說阿彌陀經(1866)	2(2%)	
	涅槃部	佛說預修十王生七經(1574), 地藏菩薩本願經(1489), 地藏菩薩本願經(1558), 地藏菩薩本願經(1562)	4(5%)	
	經集部	佛說大目蓮經(1575), 佛說大目蓮經(1664), 佛說大報父母恩重經(1546), 佛說大報父母恩重經(1546), 佛說大報父母恩重經(1555), 佛說大報父母恩重經(1564), 佛說大報父母恩重經(1717), 佛祖三經(1550)	8(8%)	
	密教部	大佛頂首楞嚴經(1489), 大佛頂首楞嚴經(1547), 大佛頂首楞嚴經(1559), 佛說長壽滅罪陀羅尼經(1420), 佛說長壽滅罪陀羅尼經(1569), 佛說長壽滅罪陀羅尼經(1536), 佛說長壽滅罪陀羅尼經(1562), 五大真言集諺解(1535)	8(9%)	
	諸經部	六經合部(1490), 六經合部(1555)	2(2%)	
論書類	釋經部	十地經論:明地(1557)	1(1%)	1종 (1%)
註疏類	般若部	般若心經疏顯正記(1553)	1(1%)	3종 (4%)
	華嚴部	大方廣佛華嚴經疏(1557-1564)	1(1%)	
	論書部	大乘起信論疏(1616)	1(1%)	
宗義類	天台宗	蓮經別讚(1546), 天台四教儀略抄(1654)	2(2%)	30종 (36%)
	禪宗	看話決疑論(1616), 誠初心學人文(1572), 誠初心學人文(1574), 高峯和尚禪要(1573), 狗子無佛性揀病論(1617), 南明泉和尚證道歌(1526), 大慧普覺禪師書(1546), 大慧普覺禪師書(1574), 大慧普覺禪師書(1642), 蒙山和尚法語略錄(諺解)(1525), 蒙山和尚六道普說(1490), 蒙山和尚六道普說(1565),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1570), 佛果園悟禪師碧巖錄(1526), 禪林寶訓(1555), 禪門綱要集(1664), 禪源諸詮集都序(1570), 禪源諸詮集都序(1645), 禪宗永嘉集(1542), 禪宗永嘉集(1575), 念佛普勸文(1765), 圓頓成佛論(1617), 儒釋質疑論(1591), 六祖大師法寶壇經(1558), 涵虛堂得通和尚顯正論(1544), 玄中銘註(1647), 護法論(1648), 黃檗山斷際禪師傳心法要(1645)	28(34%)	
史傳類	靈驗部	觀世音菩薩靈驗略抄(1732), 法華靈驗傳(1565)	2(2%)	3종 (4%)
	事典部	賢首諸乘法數(1566)	1(1%)	
禮懺類	法儀式	禮念彌陀道場懺法(1542), 現行西方經(1556)	2(2%)	8종 (9%)
	齋儀式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1490),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1559),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1639), 天地冥陽水陸儀文(1663), 天地冥陽水陸齋儀(1586),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1546)	6(7%)	
詩文類	韓國撰	四溟根源錄(1768)	1(1%)	2종 (2%)
	中國撰	龍龕手鑑(1563)	1(1%)	
합계			85종 (100%)	85종 (100%)

불서를 대상으로 분류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이 법화경은 조선시대 대략 170여종 이상 개판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단일 경전으로는 가장 많이 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판종 또한 다양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조선본 법화경의 경우 최초 간행 형태에 따라 일반적으로 성달생계, 갑인자계, 을해자계, 대자본계로 크게 그 계통을 구분하고 있

으며, 그 외에도 간경도감언해본계와 간본이 많지 않아 계통이 없는 독자적 판본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 법화경은 예외 없이 구마라집의 한역본을 저본으로 송대 계환의 주소본을 가미하여 편찬된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계통의 판본 가운데 황해도 지방의 사찰에서 개판된 법화경은 성달생이 판하본을 정서하여 전라도 고산 화암사에서 간행된 판본을 모본으로 이를 복각한 판본이 6종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선시대 이 화암사판을 모본으로 전국 사찰에서 51종 이상이 복각 간행되었는데, 그 중 강원도를 제외한 북한 지역 사찰에서는 모두 9종이 개판되었던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정왕근 2012, 63-65). 이는 1539년 황주의 심원사에서 처음으로 간행된 판본이 인근 사찰로 유포되면서 지속적으로 복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법화경은 천태종의 근본 경전으로 중시되었을 만큼 교학적 성격이 강한 불경이지만, 조선시대에는 오히려 왕실의 안녕과 죽은 부모의 왕생복락을 기원하는 공덕용 불경으로 인식되어 수 없이 개판되었다. 그리하여 인경과 동시에 불복에 복장하거나 이를 장황하여 강원도의 교재로도 활용된 측면도 보인다.

또한 경전류 중에 『은중경』과 『장수경』이 5종과 4종으로 간행 빈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은중경』은 고려 말 도상본이 처음 간행된 이래로 조선시대에 80여종 이상이 개판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바와 같이 동아시아 국가 중 유독 우리나라에서 집중적으로 간행되었던 매우 특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경전이다(송일기 2000b). 비록 중국에서 성립된 위경으로 알려져 있으나, 오히려 우리나라에는 왕

실과 민간에 널리 유포되었던 대표적인 공덕용 불경이다. 이 『은중경』은 교학적 측면에서 그다지 중시할 만한 경전으로 볼 수 없으나, 말미의 유통분에는 이 불경을 書寫, 授持, 讀誦함으로써 죽은 부모를 극락에 이르게 한다는 송경의식이 다량의 개판을 가져 왔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수명장수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장수경』과 동시에 개판되어 함께 장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많이 개판된 불서는 종의류로 전체 85종 중 30종으로 3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종의류 중 천태종 관련 불서는 2종에 불과하나, 선종 불서는 28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선종 불서에는 지눌, 나옹, 득통으로 이어지는 국내찬술 문헌이 눈에 띄며, 대혜와 고봉을 비롯하여 현각과 몽산 등의 중국찬술 문헌이 자주 보이고 있다. 특히 강원의 사미과와 사집과에서 교재로 활용된 불서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 중 사집과 불서는 황해도의 경우 모두 16세기에 개판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참고로 필자가 조사한 우리나라 전국 사찰에서 개판된 사집과 불서의 시기별 현황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표 6>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개판된 사집과 불서는 전체 115종이 현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를 토대로 추산해 보면 각 불서는 평균적으로 28회 정도 개판된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는 임란전후의 16-17세기에 무려 105종이 개판되고 있어 전체의 9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당시 승려 교육에 대한 불교계의 활약상을 그려 볼 수 있겠다. 또한 임란을 기준으로 이전의 조선전기에는 52종이 개판되어 전체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조

〈표 6〉 사집과 불서의 시기별 개판현황

刊行年代		法集別行錄 節要并入私記	禪源諸 詮集都序	高峰 和尚禪要	大慧普覺 禪師書	종수		비율 (%)	
조선전기	14세기	-	-	1	1	2	51종	2	45%
	15세기	1	1	-	-	2		2	
	16세기	11	10	14	12	47		41	
조선후기	17세기	15	15	14	12	56	63종	50	55%
	18세기	1	2	2	2	7		5	
	19세기	-	-	-	-	-		-	
총수		28	29	31	27	114		100%	

선후기는 63종이 개판되어 전체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사집과 불서를 전국 단위의 개판 현황을 근거로 살펴보면, 전기에만 집중적으로 간행된 황해도의 개판현상과는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전류와 종의류를 제외한 그 외의 부류는 1-2종에 불과하여 크게 주목되는 경향을 보이지 않고 있다.

4. 대표 각수의 판각활동 분석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사찰에서 불서의 개판 불사는 특정 개인이나 가문 혹은 집단에서 전체 출판비용을 한 차례에 시주하는 고려시대와는 달리, 일반의 많은 민중과 사중의 승려들이 가담하여 십시일반 시주한 재물을 모아서 이를 소요비용으로 충당하였다.⁴⁾ 불서 간행은 비용이 마련되면 우선적으로 목재를 구입 혹은 벌목하여 이를 연판하는 과정을 거치며, 한편으로 대상 불서를 직접 淨書하거나 기존의 간행본을

해체하여 판하본을 마련한다. 다음으로 판목과 판하본이 마련되면 이 판하본을 판목 위에 뒤집어 부치고 콩기름을 바른 다음에 각수들이 판각을 시작한다. 판각이 완료되면 이를 인경지에 인출하여 권차와 장차의 순서에 따라 裝潢하게 되면 불서의 간행과정이 완료되게 된다.

이처럼 불서의 간행에는 이를 기획하고 비용을 모아서 판각과 인출 후 장황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출판과정에는 여러 단계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주로 전체적 기획이나 비용을 마련하는 조연자와 실제 판목을 준비하고 판각하는 기능자로 그 소임이 주어진다. 그런데 조선시대 사찰에서 간행된 불서의 경우에는 중국과 일본에서 간행된 불서와는 달리 이러한 일련의 공정에 참여한 인물들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이 매우 주목된다. 맡은 소임은 매우 다양하나 대체로 化主나 幹善은 전반적으로 불사를 주관하고, 실제 판각 작업은 刻手가 맡아서 진행한다. 따라서 불서 간행의 핵심적인 작업은 판목에 불서의 내용을 한자 한자 새기는 각수의

4) 필자는 근래 불가에 출가한 승려들이 18세기 초기에 同甲契를 결성하여 집단적으로 출판비용을 모아 전라도 고창의 禪雲寺에서 『釋氏源流』를 개판한 사실을 밝힌 바 있다(송일기, 2014. 禪雲寺板 〈釋氏源流〉의 刊行事實,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2): 247-252).

소임이 가장 중요하다.

황해도 지방에서 불서 간행에 각수로 참여한 인물은 85종의 불서의 분석을 통해 대략 80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대체로 특정 사찰 한 곳에 머물면서 그 사찰에서 개관한 불서의 판각 작업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각수는 범명을 쓰고 있어 거의가 승려의 신분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1490년 자비령사에서 개관한 『육도보설』에 ‘李英實’이란 일반인 성명이 기재되어 있어 유일하게 참여한 민간인 각수로 보인다. 이들 각수는 대부분 평균적으로 2-3종의 불서를 판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하게 평균 이상으로 최소 5종 이상의 많은 불

서를 판각했던 각수도 일부 보이고 있다. 이처럼 여러 지역의 사찰과 경우에 따라 他道를 오가면서 다양한 불서를 판각했던 대표적 각수 인물은 道成, 守衍, 法通, 天心 등으로 파악되었다.⁵⁾

이들 대표적 각수 중에 가장 주목되는 첫 번째 인물은 道成으로 그가 직접 판각 작업에 참여한 활동 양상은 <표 7>과 같다.

가장 많은 불서를 판각한 각수인 道成은 황해도 지역에서 11종과 평안도 지역에서 2종 등 도합 13종의 불서를 판각한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1550년부터 서흥 귀진사에서 처음으로 『불조삼경』을 판각 이래로 1574년 문화 홍율사에

<표 7> 각수 道成의 판각 활동

순위	판각년	지역	사찰	불서명	화주	참여각수
01	1550	서흥	귀진사	佛祖三經	熙宗	能惠, 道成
02	1553	황주	심원사	般若心經疏顯正記	性旭	能惠, 一菴, 道成
03	1554	서흥	귀진사	妙法蓮華經	-	道成, 罔雄, 日庵, 一暹, 守衍
04	1555	서흥	성수사	佛說大報父母恩重經	雪淳, 釋珪	道成
05	1555	평안도 泰川	香積山 陽和寺	金剛經五家解	尙嚴	道成, 罔庵, 覺仁, 一庵, 惠衍, 守衍, 日暹
06	1557	서흥	성수사	十地經論	處守, 釋珪	惠仁, 惠能, 道成
07	1558	서흥	귀진사	金剛經五家解	智豈, 性進	法通, 道成, 正還, 覺仁, 守衍
08	1559	서흥	성수사	大佛頂首楞嚴經	雪淳	罔雄, 正還, 日庵, 惠衍, 道成, 債湜
09	1561	평안도 祥原	大靑山 解脫庵	佛頂心陀羅尼經	云熙	道成, 雪惠
10	1557-1564	서흥	귀진사	大方廣佛華嚴經疏	玄秀, 日暹, 印禪, 釋珪, 熙元, 能珠	學靈, 能惠, 罔雄, 道軒, 道成, 一暹, 一庵, 祖允, 正還, 守衍, 惠衍, 學下, 大儀, 惠正, 碧庵, 智衍, 華清, 天雄, 信衍, 債湜(권47), 晶還, 覺仁, 信熙, 祖英, 惠能, 高云
11	1564	문화	패엽사	圖像金剛經	斷祖	道成
12	1564	문화	패엽사	妙法蓮華經	處安, 信敬	碧岩, 道成, 一岩, 惠衍, 守衍, 學下, 惠淨, 天雄, 信衍, 天心
13	1574	문화	홍율사	佛說預修十王生七經	天鑑	姜允, 道成

5) 김상호는 황해도 지방에서 개관한 불서 33종을 대상으로 조사한 각수 138명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각 불서에 보이는 각수를 단순히 합계한 숫자로 실은 동일 각수가 여러 번 중복되었을 것이다. 또한 그의 조사 결과를 보면 道成은 9종, 守衍은 7종, 法通은 3종, 天心은 2종 등 4인 각수 도합 21종을 제시하고 있어 필자가 제시한 38종의 5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으로도 조사와 연구가 진행되어 지속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준다(金相湜, 1990, 『朝鮮朝 寺刹板 刻手에 관한 研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pp.59-61, 134-192).

서 『시왕경』을 판각하기까지 무려 24년 동안이나 판각 작업에 종사했던 당시 최고의 각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가 각수로 활동했던 초기에는 주로 서흥의 고덕산에 있는 성수사에 머물면서 인근의 평안도 태천 향적산에 있는 양화사와 상원 대청산에 있는 해탈암을 오가면서 활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후반 10여년은 문화의 폐엽사와 홍율사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1574년 홍율사에서 『시왕경』의 판각에 참여하기까지는 상당한 세월 동안의 공백기가 보인다. 그의 가장 왕성한 각수 활동기는 대략 전반 10여년으로 보인다. 특이한 점은 『시왕경』에 그의 소임을 ‘刊書’로 기재한 것으로 보아 그는 圖像을 전문적으로 새긴 판화 각수임을 알 수 있는데, 그가 성수사에서 판각한 『은증경』(1555년)을 비롯하여 해탈암본 『불정심다라니경』(1561년)과 폐엽사본 『도상금강경』(1564년), 그리고 홍율사본 『시왕경』(1574년)은 모두 그의 손으로 새긴 판화본으로 주목되는 불서들이다.

그가 초기에 판각했던 『반야심경소』의 인출본을 살펴보면 그 모본으로 사용한 간경도감본과 비교하여 거의 흡사할 정도로 매우 정교하게 판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판각 작업에는 能惠와 一菴⁶⁾이 함께 참여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능혜는 그 전에 1542년에 토산의 석두사에서 『예념미타도량참법』과 1550년 귀진사에서 『불조삼경』을 판각했던 경험에 있는 것으로 보아 능혜로부터 판각기술을 전수받았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그의 각수 생애 중에 최대의 개관불사는 귀진사에서 개관한 『화엄경소』

일 것이다. 이 판각 작업에는 도성은 물론 25명 이상의 각수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황해도 지역 사찰에서 활동했던 각수 대부분이 차출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책의 권47의 말미에 당시 판각에 참여한 각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재 순서가 이른바 고참순으로 볼 수 있다면 당시 도성은 다섯 번째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상급자에 해당되는 인물로 보인다.

다음으로 많은 판각활동을 보인 각수는 守衍으로 파악되었다. 그가 참여하여 판각한 불서의 면면은 <표 8>과 같다.

<표 8>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각수 守衍은 황해도 지역의 사찰에서 9종의 불서 판각하였고, 평안도와 전라도 등에서 3종의 불서를 판각하여 도합 12종을 판각한 인물로 분석되었다. 그는 1554년 귀진사에서 처음으로 『법화경』을 道成과 함께 판각한 이래로 1574년 평안도 상원의 해탈암에서 『선원도서』를 판각하기까지 20년 동안 각수로 활동하였다. 그 중 5종의 불서는 도성과 공동으로 참여하여 판각하였으며, 그 또한 황해도 최대의 개관불사인 화엄경소의 판각에 일원으로 가담하였다.

그런데 수연은 1571년에 특이하게 황해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전라도 익산의 豆叱材家에서 의뢰한 『불조삼경』의 판각에도 참여한 사실이 보이고 있다. 이 판각 작업에는 正印과 恩福 등과 함께 참여했으나, 이들은 황해도 지역에서 활동했던 각수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판각이 완성된 이후 이 경판은 인근의 은진 쌍계사로 보내져 보존되었다가 현재는 해인사로 이

6) 불서의 간기면에 ‘일암’의 한자 표기가 ‘一庵’, ‘日庵’, ‘一岩’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동일 인물로 보이며, 道成과는 여러 사찰에서 5종의 불서를 함께 판각하였던 각수이다.

〈표 8〉 각수 守衍의 판각 활동

순위	판각년	지역	사찰	불서명	화주	참여각수
01	1554	서흥	귀진사	妙法蓮華經	-	道成, 罔雄, 日庵, 一暹, 守衍
02	1555	황주	李順材 심원사	六經合部	-	罔雄, 罔菴, 守衍, 惠衍
03	1555	황주	李順材 심원사	禪林寶訓	-	罔雄, 罔菴, 守衍, 惠衍
04	1555	평안도 泰川	香積山 陽和寺	金剛般若波羅密經	尙嚴	道成, 罔庵, 覺仁, 一庵, 惠衍, 守衍, 日暹
05	1558	서흥	귀진사	金剛經五家解	智崙, 性進	法通, 道成, 正還, 覺仁, 守衍
06	1564	문화	패엽사	妙法蓮華經	處安, 信敬	碧岩, 道成, 一岩, 惠衍, 守衍, 學下, 惠淨, 天雄, 信衍, 天心
07	1557-1564	서흥	귀진사	大方廣佛華嚴經疏	玄秀, 日暹, 印禪, 釋珪, 熙元, 能珠	學靈, 能惠, 罔雄, 道軒, 道成, 一暹, 一庵, 祖允, 正還, 守衍, 惠衍, 學下, 大儀, 惠正, 碧庵, 智衍, 華清, 天雄, 信衍, 偵湜(권47), 晶還, 覺仁, 信熙, 祖英, 惠能, 高云, 竺玲
08	1564	수안	중암	妙法蓮華經	處安, 信敬	碧岩, 道成, 一岩, 惠衍, 守衍, 學下, 惠淨, 天雄, 信衍, 天心
09	1566	수안	중암	賢首諸乘法數	雲熙	守衍
10	1571	전라도 益山	豆叱材 雙溪寺	佛祖三經	看熙	正印, 恩福, 守衍
11	1572	서흥	귀진사	誠初心學人文	-	守衍
12	1574	평안도 祥原	大靑山 解脫庵	禪源諸詮集都序	云熙	守衍, 靈云

운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황해도 황주에 살았던 이순재가에서 의뢰한 『육경합부』와 『선림보훈』의 개판에는 동일한 인물들이 참여하고 있어 일반 불서의 개판 과정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8종의 불서를 판각한 범통이란 각수가 보이고 있는데, 그가 판각에 참여하여 개판한 불서는 〈표 9〉와 같다.

각수 범통은 〈표 9〉와 같이 8종의 불서를 판각했는데, 1526년 황주 심원사에서 『증도가』와 『벽암록』을 판각한 이후 1558년 서흥의 귀진사에서 『금강경오가해』를 판각하기까지 무려 26년 동안 각수로 활동하였다. 다만 1543년 토산의 석두사에서 『법화경』을 새긴 이후 15년 동안 공백기로 있어 실제 10년 남짓한 시기동

안 활발하게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 시기동안 주로 심원사와 석두사에서 여러 동료 각수들과 함께 판각 작업에 참여하였는데, 특히惠全과 學玲 등과는 오랫동안 개판에 참여했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도성과 수연의 사례처럼 황해도 외의 타도의 사찰에서 판각한 경우는 보이지 않고 있다.

끝으로 황해도 지방의 사찰에서 5종의 불서를 개판하는데 참여한 각수 天心の 판각 활동을 볼 수 있는데, 그가 판각한 불서의 면모는 〈표 10〉과 같다.

각수 天心은 모두 5종의 불서를 판각했는데, 주로 황해도 지방의 사찰 구중사, 패엽사와 신평사 등에서 판각하였음을 볼 수 있다. 그는 1562년 서흥의 구중사에서 처음으로 『장수경』

〈표 9〉 각수 法通의 판각 활동

순위	판각년	지역	사찰	불서명	화주	참여각수
01	1526	황주	심원사	南明泉和尚證道歌	戒熏	義安, 法通, 敬胡, 坦珠, 戒玉, 玄修
02	1526	황주	심원사	佛果園悟禪師碧巖錄	學淸, 戒默, 省寬	儀安, 儀浩, 法通, 敬徽
03	1535	황주	심원사	五大眞言集(諺解)	-	儀淸, 法通, 雪牛
04	1539	황주	심원사	妙法蓮華經	智寬	法通, 敬徽, 惠全, 緝熙, 雪玄, 碧岩, 高雲, 玉禪, 法悅
05	1542	토산	석두사	禪宗永嘉集	惠聰	法通, 惠全, 法悅, 緝熙, 學玲, 思義
06	1542	토산	석두사	禮念彌陀道場儀法	正眼, 惠聰	法通, 惠全, 法悅, 緝熙, 能惠, 學玲, 思義
07	1543	토산	석두사	妙法蓮華經	正眼, 惠聰, 天空, 法喜	法通, 惠全, 學正, 碧岩, 緝熙, 玄修, 雪玄, 學玲, 印器, 惠還
08	1558	서흥	귀진사	金剛經五家解	學衍, 惠能	法通

〈표 10〉 각수 天心の 판각 활동

순위	판각년	지역	사찰	불서명	화주	참여각수
01	1562	서흥	구중사	佛說長壽滅罪陀羅尼經	玲一	信衍, 天心
02	1564	문화	패엽사	妙法蓮華經	處安, 信敬	碧岩, 道成, 一岩, 惠衍, 守衍, 學下, 惠淨, 天雄, 信衍, 天心
03	1564	문화	패엽사	佛說大報父母恩重經諺解	-	天心
04	1570	해주	신광사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	處安	信衍, 天心, 通庵
05	1570	해주	신광사	禪源諸詮集都序	處安	天心, 通庵, 妙淳

을 판각한 이래 1570년 해주 신광사에서 『선원도서』를 판각하기까지 도합 8년 남짓한 시기 동안 각수로 활동했다. 비록 각수활동은 8년에 불과 하였으나, 이 시기동안 모두 5종을 판각하여 시간대비 적지 않은 종수로 생각된다. 그는 비슷한 시기에 각수 信衍과 함께 구중사, 패엽사, 신광사를 오가면서 3종의 불서를 공동으로 판각 작업에 참여하였다. 특히 1564년 패엽사에서 개판한 『은중경언해』의 경우 다른 각수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판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책에는 도상이 21점이나 수록되어 있어 비교적 판화를 능숙하게 새겼던 각수로 보인다.

이상에서 황해도 지방에서 적어도 5종 이상 판각한 道成 등 4인의 각수를 대상으로 그의 판각 활동시기와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중 도성과 수연은 황해도 지역을 넘어 평안도 등지의 사찰로 이동하면서 활발한 판각 활동을 보이고 있으나, 법통과 천심은 황해도 지방에서만 제한적으로 활동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대부분의 각수들은 주로 특정 지역의 일부 사찰에서 판각 작업에 참여하였으며, 극히 일부의 소수 각수만 타도의 사찰로 이동하면서 판각 활동을 전개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언

이 연구는 조선시대 황해도 지방에 소재하였던 사찰에서 개관한 불서를 발굴하여 이를 대상으로 지역별, 시대별, 주제별 특징을 분석하고 개관에 참여한 대표적 각수의 활동 양상을 추적해 보고자 한 결과, 대략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첫째, 조선시대 황해도 지방에서 불서를 개관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본 결과, 남부지역은 5곳의 9개 사찰에서 개관활동이 있었으며, 북부지역은 7곳의 15개 사찰에서 개관활동을 보이고 있어 도합 12곳의 24개 사찰에서 불서를 간행하였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황해도 지역 12곳의 24개 사찰에서는 남부지역에서 35종, 북부지역에서 50종 등 모두 85종에 이르는 불서가 개관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문화의 구월산에 소재하였던 사찰에서 21종이 개관되어 전체 24%를 차지하여 가장 많이 불서를 간행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구월산의 월정사에서는 13종을 개관하여 단일 사찰로 가장 많은 종수를 보이고 있다.

셋째, 이들 85종의 개관불서를 판각연대를 기준으로 시기별로 분석해 본 결과, 조선전기에 64종과 조선후기에 21종이 개관되어 각각 75%와 2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황해도 지방에서는 조선전기 중종대로부터 선조대 사이에 집중적으로 개관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명종 재위기간 동안에만 무려 32종이 개관되어 전체 3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시기 동안에 문정왕후의 후원과 왕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은 황해도 지역 불교계의 개관불사에 단합된 의지가 잘 감지

된다 하겠다.

넷째, 그러나 임란 이후 개관 활동은 급격히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바, 이는 이 황해도 지역이 임란과 호란의 양난 때 중요 격전지로 많은 인명의 손실과 물자가 탕진되었고, 이러한 결과로 이후 이 지역에서 생불을 자처하는 사건과 민란이 연이어 발생하여 민생이 파탄됨으로써 민중의 시주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개관불사에 더 이상 민간이 참여할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황해도 지방에서 간행된 불서는 주제 분류를 통해 경전류 38종과 종의류 30종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체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주로 왕실과 민간의 공덕을 기원할 목적과 사찰의 강원에서 필요한 교육용 교재로 충당할 의도에서 간행했던 결과로 보인다. 특히 왕실과 선교 양종의 판종사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서흥의 귀진사에서 1557년에 판각을 착수하여 1564년에 개관을 완성한 『화엄경소』가 주목되는데, 이는 왕실과 민간의 안녕을 기원하는 공덕과 사찰 강원의 교육을 목적으로 개관한 대표적 사례이다.

여섯째, 이러한 황해도 지방의 일련의 개관불사에 핵심적인 소임을 맡아 직접 목판에 불서를 새긴 각수는 대략 80여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은 대부분 승려 신분으로 활동하였다. 이 중 최소 5종 이상의 불서를 판각한 대표적 刻僧을 추적해 본 결과, 모두 임란 이전에 활동한 道成, 守衍, 法通, 天心 등 4인의 각수가 주목된다. 특히 도성과 수연은 각각 13종과 12종을 판각하였는데, 그들은 황해도 지방을 벗어나 인근의 평안도 지방 등 다른 지역의 사찰에서도 활동한 사실이 보이고 있다.

참 고 문 헌

- [1] 김상호. 1990. 『朝鮮朝 寺刹板 刻手に 関한 研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2] 손성필. 2013. 『16·17세기 불교정책과 불교계의 동향』.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 [3] 송일기, 정왕근. 2015. 조선시대 금속활자본 불교서적의 서지적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9(1): 223-246.
- [4] 송일기. 2000a. 韓國本 『父母恩重經: 漢文』의 板本에 関한 研究. 『書誌學研究』, 19: 177-218.
- [5] 송일기. 2000b. 『韓國本 『父母恩重經: 諺解·한글』의 板本 및 한글서체에 関한 研究』.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6] 송정숙. 2014. 佛果圓悟禪師碧巖錄의 편찬과 수용. 『書誌學研究』, 60: 109-143.
- [7] 이상백. 2014. 歸眞寺와 간행 불경 연구. 『書誌學研究』, 58: 465-495.
- [8] 정왕근. 2012. 『朝鮮時代 〈妙法蓮華經〉의 板本 研究』.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9] 최선희. 2013. 조선후기 숙종대 황해도 지역의 '生佛'사건. 『歷史學研究』, 50: 121-160.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Kim, Sangho. 1990. *A Study on the Engravers of Temple Woodblock Publications in Choson Dynasty*. Ph.D. diss., Graduate School of Sungkyunkwan University, Korea.
- [2] Sohn, Seongphil. 2013. *The Choson Court Policies on Buddhism and the Buddhist Activities in the Sixteenth and Seventeenth Centuries*. Ph.D. diss., Department of History, Dongguk University, Korea.
- [3] Song, Il-Gie and Jung, Wang-Kun. "A Bibliographical Study on the Metal Type Buddhist Book Editions during the Joseon Dynasty Period."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9(1): 223-246.
- [4] Song, Il-Gie. 2000a. "A Study on the Wood-Block Printing of Pumo-Unjungkyong Printed Books in Korea." *Journal of the Institute of Bibliography*, 19: 177-218.
- [5] Song, Il-Gie. 2000b. "A Study on the Wood-Block Printing and the Hardwriting of Pumo-Unjungkyong (Korean Annotation · Hangul) Printed Books in Korea." *Journal of the Library*, 55(2): 1-30.
- [6] Song, Jung-Sook. 2014. "A Study on the Compilation and Acceptance of the Blue Cliff Record." *Journal of the Institute of Bibliography*, 60: 109-143.
- [7] Lee, Sang-Baek. 2014. "The Study of Gwiin-sa and Buddhist Scriptures Published by Gwiin-sa."

Journal of the Institute of Bibliography, 58: 465-495.

- [8] Jeong, Wang-kun. 2012. *A Bibliographical Study on Lotus Sutra Published in Cho-sun Dynasty*. Ph.D. diss.,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hung-ang University, Korea.
- [9] Choi, Seon-hye. 2013. "The Living Buddha Cases of Hwanghae Province During the King Suk-jong Regime in the Late Joseon Dynasty." *Chonnam Historical Review*, 50: 121-160.